

2008년도 시책구상 보고회 개최

- 2008년도 정부예산확보목표 3조 6,279억원 잠정 설정 -

충남도는 2월 16일 道廳대회의실에서 道간부와 시군기획실장, 산하기관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순기를 1년 앞당겨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건설을 가속화하고, 정부예산 확보와 연계추진하기 위하여 1995년 민선출범 이후 처음으로 2월에 시책 구상 및 국비예산확보계획 보고회를 갖는 등 발빠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道의 업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산하단체장을 시책구상보고회에 처음으로 참석시켜 도정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격의 없는 토론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민선4기 3차년도(2008)」를 맞아 도정의 경쟁력제고와 지역발전을 촉진할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 되었다.

2008년도 시책구상으로 제시된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문화·관광분야 〉

- ▶ 한·중·일 등 범 백제권 교류강화 및 백제역사 문화도시 추진
- ▶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진흥
- ▶ 大백제전 성공개최를 위한 「2010 충남방문의 해」 유치
- ▶ 섬지역의 특성을 살린 「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 추진
- ▶ 현대문명의 혜택에서 벗어난 체험마을 조성 등

< 경제분야 >

- ▶ 외국인 투자기업 「Home Doctor제」 운영
- ▶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CEO」 전용주거마을 조성
- ▶ 지역경제 정책의 타당성 검증 등을 위한 「지역경제 분석센터」 설립 운영
- ▶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한 「기업애로 콜(call)제」 운영 등

< 주민안전 분야 >

- ▶ 합동 안전복지서비스 기동팀 운영, 재난취약 가구(8,362개소) 안전 확보
- ▶ 독거노인 등 영세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500가구, 연차적 확대)
- ▶ 도서별 「119 나르미션」지정(어선71척), 응급환자 신속이송 등

< 복지·환경분야 >

- ▶ 청각장애인 민원편의를 위한 「영상전화기」 확보 보급(228대)
 - 도내 16개 수화통역센터를 연계한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 ▶ 21C 전국 모델형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
- ▶ 도청 이전지 「환경시설 종합처리」 시스템 구축
- ▶ 수돗물 불신해소를 위한 「안전급수 품질인증제」 도입
- ▶ 「여성희망일터 지원단」 구성·운영(유관단체 20명 내외)

< 농림수산분야 >

- ▶ 충남쌀 전국 최고로 육성키 위한 생산기술 및 경영비 절감 추진
- ▶ 농업경영전문CEO 육성을 위한 「신지식 학사농업인」 육성
- ▶ 유통단체를 축소하여 직 거래액을 「毎年 1천억씩」 증액
 - 산지유통센터(APC) 지속 확충,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인증확대
- ▶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 등으로 「농수산물 수출 4억\$」 달성 등

< 건설교통분야 >

- ▶ 수려한 경관보존을 위한 「충남경관 기본계획」 수립

- ▶ 공장 건축허가 「전담 도우미제」 실시
- ▶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저상버스 도입)
- ▶ 「행정도시~공주간 경전철」 국가계획에 반영 추진
- ▶ 대산~이원간(4km, 접속도로 포함) 교량건설 추진 등

〈 일반행정 분야 〉

-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순도민의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 ▶ 사업별 성과에 따른 「예산차등지원 시스템」 도입
- ▶ 아름다운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 ▶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방세 인터넷 포탈시스템」 구축
- ▶ 청구인 편의 제공을 위한 행정심판위원회 年1회 이상 시군 개최 등이다.

이번에 보고된 시책구상 사업은 관계전문가로부터 사업의 타당성·효과성 등 심층 자문을 받아 시책으로 확정하고 국비 등을 확보, 본격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충남도의 2008년도 국비예산 확보목표액은 2007년도 확보액 3조 4,571억원보다 5%가 증가된 「3조 6,279억원」으로 잠정 설정하였다.

주요 확보대상중 계속사업으로는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건설 2,566억원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건설 611억원 ▲장항선 개량 2,806억원 ▲보령신항 건설 50억원 ▲대산항 건설 300억원 ▲탕정TC·천안·장항산단 진입도로건설 850억원 ▲국도 4차로 확포장(42지구) 3,222억원등이며, 신규사업으로는 ▲가고싶은 섬조성 22억원 ▲해양휴양관광지 조성 70억원 ▲지방산업단지 용수 공급시설 187억원 등이다.

충남도에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앞으로 월 1회 국비확보추진상황 보고회와 함께 「국회의원 초청 도정설명회」 등 영향력이 많은 각계 인사와 연대를 강화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충남도, '기업 활성화 워크숍' 개최

- 기업인 100여명 참석, 도 중소기업지원시책 등 설명 -



충남도는 3. 9일 아산시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자치단체장, 도의원, 기업인 연합회 임원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인의 경영혁신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업인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충남도는 '2007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설명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충복 교수가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노사관계 구축'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이 교수는 특강에서 노사협력은 어느 한 쪽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와 사용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공통적인 목표를 확인하여, 그 목표를 공동으로 성취할 방법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협력적 노사관계의 목표는 노사관계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의 산업평화적 이념의 정립, 생산성 향상과 공정한 성과배분의 실현, 노사관계의 안정에 있음을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도 정부부지사는 이완구 도지사를 대신한 축사에서 "우리는 10년전 IMF를 극복하고 오늘날 11위의 경제대국을 이루었으며, 충남은 지난 '90년 이후 연평균 31%의 높은 수출성장세를 유지하여 400억불을 돌파하는 신화를 창조했다"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임에는 분명하지만 기업인들이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창조와 도전정신으로 무장한다면, 선진국 진입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화·관광·체육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道, 21세기 문화의 시대 맞아 발전방안 모색 -



충남도는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가장 오고 싶고, 만족 할 수 있는 충남 건설'을 위해 지난 3. 2 일 청양군청 회의실에서 道, 시·군 문화·관광·체육분야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문화관광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관광국의 올해 업무계획과 내년도 시책구상 설명에 이어 각 시·군별 2007년도 업무 계획 보고와 건의사항을 듣고 도와 시·군이 함께 해

야할 시책에 대한 자유토론을 실시하였으며 道는 건의된 사항을 최대한 문화관광 시책에 반영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화예술분야는 문화예술의 창달 및 전통문화의 보존·전승 발전으로 충남 문화의 세계화와 문화산업의 역량강화, 고품격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키로 했으며, ▲관광분야에서는 특성화된 문화관광 자원개발과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수도권을 겨냥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키로 하였고, ▲체육분야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스포츠 마케팅 강화와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를 유치해 체육 강도의 위상을 제고키로 했다.

특히, 금번 토론회에서 문화관광 전문가인 변상현 前충남대학교수의 '외부인사가 바라본 바람직한 충남의 문화관광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실시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서철모 문화관광국장은 "앞으로 충남의 힘은 문화관광분야에서 발휘 될 것이라며, 지방화시대 우리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참석자 모두 전문가의 시각과 창의적인 사고로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충남도가 개척'해 나가자고" 말했다.

충남도 도서개발사업 54억 투입

- 보령시 원산도 등 10개 도서 복지회관 건립, 도로 확·포장 등 지난해보다 두배 넘는 28억원 증가 -

충청남도는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올해 보령시 원산도 등 10개 도서에 54억1,800만원을 투자하여 복지회관 건립, 도로 확·포장사업, 선착장·방조제·방파제 정비 등 도서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보령시 원산도 외 5개 도서에 43억7,500만원을 들여 복지회관 건립 1개소, 도로 확·포장사업 5개소 ▲서산시 옹도에는 3억원을 들여 방조제 1개소를 정비하고, ▲홍성군 죽도에는 3억원을 들여 선착장 정비와 도로포장 1개소를 실시한다.

▲태안군 외도에는 1억4,300만원을 들여 방파제 보수 1개소와 ▲당진군 대난지도에는 3억원을 들여 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올해는 2차 10개년 계획의 마무리 되는 해로 지난해 보다 두배가 넘는 28억원이나 증가된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내년부터는 제3차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더 많은 예산을 확보 도서민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토론회 개최

- 지방투자활성화 촉진법' 제정을 위한 설명 및 민의수렴 -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성장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지방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토론회'가 3. 7일 충청도청에서 충청지역 경제계 인사와 상공인, 언론인, 지역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국회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특위 일자리창출 소위원회'가 주최하고 충청남도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현재 국회에서 입법 중인 가칭 '지방투자활성화 촉진법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각계의 의견과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여 법률안에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종찬 고려대 교수가 '대전, 충남·북지역의 투자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일자리창출 소위원장 권경석 국회의원이 '일자리 창출의 최우선 과제는 지방투자 활성화'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 후, 김용남 충남발전연구원장, 이수희 충북개발연구원장, 박건욱 충청투데이 주필 등 5명의 패널이 일자리창출과 지방투자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열린 토론회를 하였다.

법안의 발의를 준비 중인 권경석 의원은 "고비용 저효율의 사회 경제구조의 문제를 안고 있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된 비수도권 지방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특단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법률안에 구체화 하고자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워크숍 개최

- 꽃박람회 기본계획 협의·검토 등 전문가 의견 수렴 -

충남도는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 개최계획에 따른 내실 있는 계획수립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3. 8(목)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워크숍(Workshop)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충남도 최민호 행정부지사와 지난 2월초 공식출범한 충남개발공사 사장 및 임직원, 태안군 관계자, 2002년도 꽃박람회 개최당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실내·외 연출가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꽃박람회 기본계획에 따른 현안과제 등을 집중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002년 꽃박람회의 성공개최로 인해 그 동안의 노하우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이기는 하나, 2009년도 꽃박람회 개최를 위한 준비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2009년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꽃박람회 개최지의 현지 기반시설 여건 등 세밀한 현황분석과 지역주민 참여방안 등을 모색 했다.

본 워크숍을 시발점으로 박람회 타당성 분석 등 2007. 6월 말까지 기본 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회장조성 및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2008년부터 토목, 조경, 화훼, 건축, 통신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이번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道の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켜 서해안 지역의 경제를 선도하는 성장거점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